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2017년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큰 의미를 갖는 해다.

6월 26일이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그간 해오던 마약퇴치 활동이 올해부터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마퇴본부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4월 21일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이 날 전국에서 활동 중인 마퇴본부 임직원과 후원자가 4반세기의 활동을 돌아켜보고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지난해 5월 취임한 이경희 이사장은 1년간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힘 없이 달려왔다. 목표를 이룬 지금, 그는 마약 퇴치 운동의 구심점으로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4월 19일 이 이사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글쓴이 _ 이문예 '푸드앤메드' 기자

Q.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마약청정국이란 말 뒤에 숨어 마약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됐다는 것은 마약이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란 것을 의미합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달력에 6월 26일이 마약퇴치의 날로 표시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Q. 입법을 위한 설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란 근거 없는 믿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정책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들었던 인사가 “한국은 아직 괜찮죠?”였습니다. 어떤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이미 마약청정국이 아니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너무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Q. 마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교에 교육을 하러 나가면 아직도 교장부터 나서서 ‘우리 학교에 마약을 하는 학생은 없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금연 교육은 반기면서 마약엔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죠. 마약은 우리와 먼 이야기란 생각 때문입니다. 금연이나 알코올 중독의 예방·재활과 관련해서 기부나 후원도 많이 하지만 마약엔 후원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고 나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이웃의 일이란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후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요?

“그동안 국내에서도 국제연합(UN)이 정한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등 상시적으로 다양한 마약 퇴치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공공성을 띄는 활동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다양한 대국민 마약 퇴치 관련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청 광

장에서 대규모 마약퇴치 콘서트를 한다든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부스를 여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앞으로 마퇴본부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역할은?

“한국은 예방 교육에 관한 한 비교적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자 재활에 대해선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교도소나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에선 마약에 일단 중독되면 재활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마퇴본부가 모든 중독자의 재활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제대로 중독자 재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재활 교육을 돕겠다는 건가요?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가을 즈음 마퇴본부의 재활센터가 리모델링을 끝내고 재개원할 텐데요. 이곳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인 재활·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해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기관·단체·지자체 등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Q.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창립 행사를 전국 단위의 큰 행사로 열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공익기관으로서 대외 봉사에 주력한다는 차원에서 내부 행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온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25주년이란 숫자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내부 단합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행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4천여 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위해 전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직원과 교육 활동가·정기 후원자 수를 파악했더니 15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활동을 하는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인 우리 직원이 단합해야 앞으로 더 활기차게 마약 퇴치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